

선형 VS심화	학년	진도	등급	멘트 내용
별 1	중3	고1-1 이상	3등급 이하	고등 수학부터는 '상위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라면 '내신과 수능 일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것이 중요 합니다. 킬러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을 안정적으로 풀 수 없는 상태에서 선형을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간 선형은 장기 기억으로 제독되기 이전에 현행으로 돌아와야 하며, 학습 효율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킬러 문제를 충분히 풀어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적당한 심화 학습으로 보가 가능합니다. 킬러 문제는 일반적인 학습으로는 제독할 수 있는 문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학습으로 제독이 가능한 심화 문제까지는 반드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상위권 경쟁력이 생깁니다.
				'영제 교육'을 하고 싶다면 일단 우리 아이의 학년부터 확인 하세요. 우리 아이 학년이 초5이하의 학생이라면 초6이되기 전까지 원하는 '영제 교육'을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단, '영제 교육'을 하신다면 반드시 목표 시험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 목표 시험은 꼭 지필평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수학, 과학 경시 준비를 하셔도 되고, 탐구 토론 대회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단, 목표 시험을 위해 충분한 학습 할 수 있는 유리적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초6 이후 시기부터는 '영제학교 합격선'이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영제 교육'보다 '경구 교육'에 몰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영제학교나 과학교, 전국단위자사고 등과 같은 특목고 진학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목고 입시 특성상 지필평가는 영제학교만 진행하기 때문에 양에 학교 진학이 확실시 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생은 '경구 교육'과정 지필평가를 준비하는 것이 확실하므로 유리 합니다. 중등 수학은 성취도가 80%정도만 나와도 다음 진도 진행에 문제가 없지만 고등 수학은 반드시 목표 등급을 만든 후 다음 과정 진도를 진행 해야 합니다.
2	초4이하	전진도	1등급	초등 수학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습적으로 불성실 한 경우 또는 수학적 학습 역량이 부족한 경우 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원 입시제도에서는 '최소한의 방어'가 필요 합니다. '최소한의 방어'란? 후배 학습을 하더라도 초등 5-6학년 수학 과정은 반드시 성취도 80% 이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 시기에 배워할 수학 기본 역량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면 다음 과정은 더 이상 정상적인 속도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수포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다른 과목의 학습량을 줄여서라도 반드시 성취도 80%이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1이 될때까지 초등 수학 성취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수학을 양기 해서 해야 하는 상태라고 판단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 중1-2학년 시기에 수학의 학습량을 최소로 줄이고, 성취도가 잘 나오는 과목에 몰입하여 타 과목 성취도를 최대한 올리고, 중3 시기에 수학 학습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유리 합니다.
3	초5~6	초6-2이하	5등급 이하	초등 수학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습적으로 불성실 한 경우 또는 수학적 학습 역량이 부족한 경우 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원 입시제도에서는 '최소한의 방어'가 필요 합니다. '최소한의 방어'란? 후배 학습을 하더라도 초등 5-6학년 수학 과정은 반드시 성취도 80% 이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 시기에 배워할 수학 기본 역량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면 다음 과정은 더 이상 정상적인 속도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수포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다른 과목의 학습량을 줄여서라도 반드시 성취도 80%이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1이 될때까지 초등 수학 성취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수학을 양기 해서 해야 하는 상태라고 판단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 중1-2학년 시기에 수학의 학습량을 최소로 줄이고, 성취도가 잘 나오는 과목에 몰입하여 타 과목 성취도를 최대한 올리고, 중3 시기에 수학 학습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유리 합니다.
	초5~6	중1-1 이상	7등급 이하	중등 선행 학습을 하고 있지만 성취도가 잘나오지 않는 경우, 초5-6 과정의 학습 성취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초5-6과정 학습 성취도가 80%이상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초5-6과정 학습부터 다시 학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초5-6과정 학습 성취도는 잘 나오지만, 중등과정 학습 성취도만 떨어지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타 과목 학습 시간을 줄여서라도 수학 학습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코 학습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 완성도 확인을 하는 선진성이 필요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 완성도는 '맞은 문제'에 대한 확인 입니다. 2주전 진도에서 맞은 문제를 무작위로 질문 하였을 때,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유형이나 개념은 반드시 다시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진행해도 중1이 되는 시점까지 성취도가 올라가지 않는 학생은 수학을 양기하는 학생 입니다. 그런 경우 중1-2 시기까지 수학의 학습량을 최소로 줄이고, 타 과목 공부할 더 하여 중3 시기에 수학 학습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초5~6	초6-2이하	3~4등급	원 입시제도에서 지필 평가를 직접적으로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은 고등 교육 과정부터 입니다. 고등 교육 과정과 초,중등 교육 과정의 연계성을 확인 해 보면 기본 개념 학습의 연계성은 높지만 오히려 심화 과정에 대한 연계성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권 아이들'은 심화 과정 학습을 양기나 반복 학습에 의존하여 단기 기억 상태로 저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습 역량이나 효율이 떨어질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중위권 아이들'의 학습 전략은 초, 중등 교육 과정 완성도를 100%가 아닌 80%만 만드는 것 입니다. 즉 다시 말해 가장 아이들의 학습 효율이 좋고, 고등 연계성이 높은 개념 학습은 충실히 하고, 심화 과정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 상태적으로 진행 진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고등 학습을 할 수 있는 유리적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만든 시간을 고등 교육 과정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원 입시제도에서 유리 합니다. 가본 만큼 명확히 되어있어도 고등 과정 진행이 가능하며, 직접적인 고등 과정 학습을 많이 하는 것이 무조건 고등 등급에 유리 합니다.
	초4이하	전진도	5등급 이하	원 입시제도에서 지필 평가를 직접적으로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은 고등 교육 과정부터 입니다.
4	초5~6	중1-1 이상	5~6등급	원 입시제도에서 지필 평가를 직접적으로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은 고등 교육 과정부터 입니다. 고등 교육 과정과 초,중등 교육 과정의 연계성을 확인 해 보면 기본 개념 학습의 연계성은 높지만 오히려 심화 과정에 대한 연계성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권 아이들'은 심화 과정 학습을 양기나 반복 학습에 의존하여 단기 기억 상태로 저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습 역량이나 효율이 떨어질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중위권 아이들'의 학습 전략은 초, 중등 교육 과정 완성도를 100%가 아닌 80%만 만드는 것 입니다. 즉 다시 말해 가장 아이들의 학습 효율이 좋고, 고등 연계성이 높은 개념 학습은 충실히 하고, 심화 과정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 상태적으로 진행 진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고등 학습을 할 수 있는 유리적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만든 시간을 고등 교육 과정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원 입시제도에서 유리 합니다. 가본 만큼 명확히 되어있어도 고등 과정 진행이 가능하며, 직접적인 고등 과정 학습을 많이 하는 것이 무조건 고등 등급에 유리 합니다.
	초5~6	중1-1 이상	5등급 이하	원 입시제도에서 지필 평가를 직접적으로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은 고등 교육 과정부터 입니다. 고등 교육 과정과 초,중등 교육 과정의 연계성을 확인 해 보면 기본 개념 학습의 연계성은 높지만 오히려 심화 과정에 대한 연계성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권 아이들'은 심화 과정 학습을 양기나 반복 학습에 의존하여 단기 기억 상태로 저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습 역량이나 효율이 떨어질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중위권 아이들'의 학습 전략은 초, 중등 교육 과정 완성도를 100%가 아닌 80%만 만드는 것 입니다. 즉 다시 말해 가장 아이들의 학습 효율이 좋고, 고등 연계성이 높은 개념 학습은 충실히 하고, 심화 과정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 상태적으로 진행 진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고등 학습을 할 수 있는 유리적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만든 시간을 고등 교육 과정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원 입시제도에서 유리 합니다. 가본 만큼 명확히 되어있어도 고등 과정 진행이 가능하며, 직접적인 고등 과정 학습을 많이 하는 것이 무조건 고등 등급에 유리 합니다.
5	초5~6	초6-2이하	1~2등급	원 입시제도에서 지필 평가를 직접적으로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은 고등 교육 과정부터 입니다. 고등 교육 과정과 초,중등 교육 과정의 연계성을 확인 해 보면 기본 개념 학습의 연계성은 높지만 오히려 심화 과정에 대한 연계성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권 아이들'은 심화 과정 학습을 양기나 반복 학습에 의존하여 단기 기억 상태로 저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습 역량이나 효율이 떨어질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중위권 아이들'의 학습 전략은 초, 중등 교육 과정 완성도를 100%가 아닌 80%만 만드는 것 입니다. 즉 다시 말해 가장 아이들의 학습 효율이 좋고, 고등 연계성이 높은 개념 학습은 충실히 하고, 심화 과정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 상태적으로 진행 진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고등 학습을 할 수 있는 유리적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만든 시간을 고등 교육 과정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원 입시제도에서 유리 합니다. 가본 만큼 명확히 되어있어도 고등 과정 진행이 가능하며, 직접적인 고등 과정 학습을 많이 하는 것이 무조건 고등 등급에 유리 합니다.
	초4이하	전진도	3~4등급	원 입시제도에서 지필 평가를 직접적으로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은 고등 교육 과정부터 입니다. 고등 교육 과정과 초,중등 교육 과정의 연계성을 확인 해 보면 기본 개념 학습의 연계성은 높지만 오히려 심화 과정에 대한 연계성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권 아이들'은 심화 과정 학습을 양기나 반복 학습에 의존하여 단기 기억 상태로 저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습 역량이나 효율이 떨어질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중위권 아이들'의 학습 전략은 초, 중등 교육 과정 완성도를 100%가 아닌 80%만 만드는 것 입니다. 즉 다시 말해 가장 아이들의 학습 효율이 좋고, 고등 연계성이 높은 개념 학습은 충실히 하고, 심화 과정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 상태적으로 진행 진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고등 학습을 할 수 있는 유리적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만든 시간을 고등 교육 과정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원 입시제도에서 유리 합니다. 가본 만큼 명확히 되어있어도 고등 과정 진행이 가능하며, 직접적인 고등 과정 학습을 많이 하는 것이 무조건 고등 등급에 유리 합니다.
6	초4이하	전진도	2등급	원 입시제도에서 지필 평가를 직접적으로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은 고등 교육 과정부터 입니다. 고등 교육 과정과 초,중등 교육 과정의 연계성을 확인 해 보면 기본 개념 학습의 연계성은 높지만 오히려 심화 과정에 대한 연계성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권 아이들'은 심화 과정 학습을 양기나 반복 학습에 의존하여 단기 기억 상태로 저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습 역량이나 효율이 떨어질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중위권 아이들'의 학습 전략은 초, 중등 교육 과정 완성도를 100%가 아닌 80%만 만드는 것 입니다. 즉 다시 말해 가장 아이들의 학습 효율이 좋고, 고등 연계성이 높은 개념 학습은 충실히 하고, 심화 과정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 상태적으로 진행 진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고등 학습을 할 수 있는 유리적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만든 시간을 고등 교육 과정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원 입시제도에서 유리 합니다. 가본 만큼 명확히 되어있어도 고등 과정 진행이 가능하며, 직접적인 고등 과정 학습을 많이 하는 것이 무조건 고등 등급에 유리 합니다.
	초5~6	중1-1 이상	4등급 이상	원 입시제도에서 지필 평가를 직접적으로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은 고등 교육 과정부터 입니다. 고등 교육 과정과 초,중등 교육 과정의 연계성을 확인 해 보면 기본 개념 학습의 연계성은 높지만 오히려 심화 과정에 대한 연계성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권 아이들'은 심화 과정 학습을 양기나 반복 학습에 의존하여 단기 기억 상태로 저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습 역량이나 효율이 떨어질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중위권 아이들'의 학습 전략은 초, 중등 교육 과정 완성도를 100%가 아닌 80%만 만드는 것 입니다. 즉 다시 말해 가장 아이들의 학습 효율이 좋고, 고등 연계성이 높은 개념 학습은 충실히 하고, 심화 과정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 상태적으로 진행 진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고등 학습을 할 수 있는 유리적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만든 시간을 고등 교육 과정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원 입시제도에서 유리 합니다. 가본 만큼 명확히 되어있어도 고등 과정 진행이 가능하며, 직접적인 고등 과정 학습을 많이 하는 것이 무조건 고등 등급에 유리 합니다.
	중3	고1-1 이상	1~2등급	원제 진행하고 있는 고등수학의 등급이 안정적으로 1~2등급이 나온다면, 다음 학기 고등 수학 선형을 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물론 단, 1월이후에 더 올릴 수 있도록 심화를 다지고 싶은 학생도 있었지만 여차지 시절 한 달전 내신 대비 때 다시 복습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다음 학기 선형을 제대로 학습하여 고1 내신 기간에 선행시 중단되더라도 대표유형이 혼돈되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래서 선형의 학습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등 수학의 경우 대표유형을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것도 시중 문제집 2-3권의 학습량이 필요하니 열심히 준비 해야 합니다.
	중1~중2	중1-1 이상	3~4등급	초, 중등 수학 등급이 3~4등급인 중1,2 학생들은 아직 고등 진학 전까지 충분히 고등 수학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고등 수학의 경우 고1 내신시험 하나를 2등급 이내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4~9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학습 완성 시간의 편차도 크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고1 내신 시험 준비를 하면서 등급까지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간도 소모없는 고등 선형할 때, '실전 기출 학습'을 진행하자 합니다. 이는 본인의 현실 등급을 모르는 원인이 됩니다. 시험을 잘보기 위해서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공부해야 합니다.

386	고등 수학부터는 '상위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라면 '내신과 수능 킬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것이 중요 합니다.
587	영제 교육을 하고 싶다면 일단 우리 아이의 학년부터 확인 하세요.
514	아이가 학습적으로 불성실 한 경우 또는 수학적 학습 역량이 부족한 경우 모두 원 입시제도에서는 '최소한의 방어'가 필요 합니다.

584	중등 선행 학습을 하고 있지만 성취도가 잘나오지 않는 경우, 초5-6 과정의 학습 성취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568	원 입시제도에서 지필 평가를 직접적으로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은 고등 교육 과정부터 입니다.
0	
0	

599	중학생 아이들이 수학에서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수학 학습량을 줄여야 합니다.
596	
0	대부분은 초중 과정을 학습 할 때 성적이 좋으면 고등 과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92	원제 진행하고 있는 고등수학의 등급이 안정적으로 1~2등급이 나온다면, 다음 학기 고등 수학 선형을 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0	상위권 아이들은 최상위권을 잡을 수 있는 학습 전략이 필요합니다.
329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등수학의 등급이 안정적으로 1~2등급이 나온다면, 다음 학기 고등 수학 선형을 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301	초, 중등 수학 등급이 3~4등급인 중1,2 학생들은 아직 고등 진학 전까지 충분히 고등 수학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초4이하	전진도	5~6 등급	<p>거학년이면서 성적이 중위권인 학생들은 항상 학원과 과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고민은 그만 하시고 학원도 과외도 모두 틀린 선택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단, 학원과 과외의 목적만 명확히 하고, 시기에 맞게 선택 해 주시면 됩니다.</p> <p>학원과 과외 모두 큰 틀에서는 학원에서 학습 할 수 없거나 부족하다로 생각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더 세부적인 목적을 확인 해 보면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학원은 학교와 비슷한 학습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일대 다수의 학습이 진행 됩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 환경에서 학습을 잘 하고 있으면서 선행이나 심화 학습 같이 학교에서 진행되지 않은 학습을 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에게 적합 합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 환경에서 학습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것은 부적합 합니다. 이런 경우는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목적과 기간을 정해 과외를 진행 하는 것이 적절 합니다. 단, 과외를 진행 하면서 학습 습관 교정을 병행하여, 학교 정규 수업만으로도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p>
5				
6				
파 7	초5이상	전진도	5~6등급	<p>성적이 중위권 이상인 경우 과외보다는 학원에 적응 시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학원은 과외보다 학습 환경이 학교와 유사 하기 때문에 '학원 학습 성취도'가 높아 지면, '학교 학습 성취도'도 무리 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은 정기적으로 학습 가능한 학습이고, 과외보다 정확한 레벨과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더 좋은 수 밖에 없습니다.</p> <p>단, 일대 다수의 수업에 적응을 못하여 학원을 꺼리는 경우라면 한시적으로 과외를 병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외는 학원에서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학습 습관을 교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진행 되어야 합니다.</p>
	초4이하	전진도	4등급이상	
	초5이상	전진도	3~4등급	

593 학교 교육 환경에서 학습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것은 부적합 합니다.

0

0

324

0

0 성적이 중위권 이상인 경우 과외보다는 학원에 적응 시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0

5

일반 VS 올림	학년	진도	등급	멘트 내용
별 1	중1~2	전진도	1~2등급	<p>중1~2 시기 정도가 되면, 과목별 학생의 학습 역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과목은 학습 역량이 계속 올라가 상위 등급이 되는 반면 또 다른 과목은 어느 순간부터 학습 역량이 올라가지 않고, 양거나 반복 학습에 의존해 단기 기억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아이들은 심화 학습 단계에서 이해가 아닌 암기로 암기하여 버려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 중3 이후 반복 이전까지는 과외만 '몰입 학습'을 통해 등급 차별화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p> <p>예를 들면 영어는 잘하지만 수학 심화 단계를 힘들어 하는 아이가 있다면, 대부분은 수학 사교육 학습 비중을 더 늘려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중1~2 시기에는 반대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수학 학습 비중을 줄이고, 잘 하는 영어 학습 비중을 늘리는 것 입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착각해 하지 말고, 암시 평가 요요인 고등 내신과 수능 영어 등급까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만들어 놓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 중3~고1 시기에 영어 학습 시간을 최소로 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학 학습 시간을 극대화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p>
2	중3	전진도	6등급 이하	<p>중3인 우리 아이가 주요 과목 등급이 안나온다면, 이 시기에는 반드시 '몰입 학습'을 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3 11월 기준 이전과 이후 학습 방향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중3 11월 이전 시기는 1~2과목 '몰입 학습'을 중3 11월 이후 시기는 '고1 권태로 내신대비'를 해야 합니다.</p> <p>중3 11월 이후 시기부터는 학습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학습 등급이 하위권인 학생들은 더더욱 권태로 내신대비를 할 수 밖에 없어서 특별한 전략이라는 것은 만들 수 없습니다. 고1 내신 등급을 받고 나서 등급을 보고, 다시 학습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하지만 중3 11월 시기 이전이라면, 남은 기간에 따라 1~2과목에 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입해야 하는 과목은 가장 등급이 잘 나오거나 학습하기 가장 편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1월 이전에 고1 학기 중간, 기말 범위까지 2번의 시험 등급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등급 확인은 반드시 '실전 기술'로 해야 합니다.</p>
	중1~2	전진도	3~4등급	<p>중1~2 중상위권 아이들은 '고등학교 진학 시 성적이 중하위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노력을 하기 어려운 것이 '기존에 진행 했던 학습 루틴'이 나름 하소를 가지 완성한 것 이기에 쉽게 그 학습 루틴을 바꿀 수도 없게 됩니다.</p> <p>하지만 단장기 이 생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중1~2 시기가 상위권 도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기 때문 입니다. 그동안 해 왔던 남달라 비효율한 학습으로는 절대 상위권 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사교육을 해 왔던 과목에 대해선 학습을 계속 진행하여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1~2 시기부터는 내신과 수능 영어 등급까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만들어 놓는 것 입니다. 단속의 빠른 진행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실제 대입에 반영되는 고등 내신과 수능 등급을 만들어 보세요. 중3 이후를 반복 이전까지 본인이 잘하는 과목의 등급을 2~3등급이 아닌 1등급까지 안정적으로 끌어 올려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과목 학습 시간을 줄이거나 배야 한다면 과감히 실행 하세요.</p>
	초6이하	전진도	3등급이상	<p>초등 학생이면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 대부분 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교육을 다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이 판단이 아이의 경쟁력을 잃게 합니다.</p> <p>학습은 종류가 달라지면 절대 모든 학습을 다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사교육을 선택하실 때는 학습 목표가 필요 합니다. 그 목표는 시험이나 대회를 기준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하면 그 시험이나 대회가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더 좋습니다.</p> <p>아이의 학원 시간표를 볼 때는 동네의 유명학원 시간을 먼저 체크 해 두고 남은 시간을 찾아서는 안됩니다. 아이가 원 시점에서 목표하는 대외 시험을 최대한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이나 과외를 우선 순위로 하여 시간표를 먼저 체크 하고,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교육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는 목표도 하는 대외나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는 경향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이는 입시에 정장해 큰 도움이 됩니다.</p>
3	중3	전진도	1~2등급	<p>중3 시기 정도가 되면, 과목별 학생의 학습 역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과목은 학습 역량이 계속 올라가 상위 등급이 되는 반면 또 다른 과목은 어느 순간부터 학습 역량이 올라가지 않고, 양거나 반복 학습에 의존해 단기 기억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아이들은 심화 학습 단계에서 이해가 아닌 암기로 암기하여 버려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 중3 11월 이전까지는 과외만 '몰입 학습'을 통해 등급 차별화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p> <p>예를 들면 영어는 잘하지만 수학 심화 단계를 힘들어 하는 아이가 있다면, 대부분은 수학 사교육 학습 비중을 더 늘려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중3 11월 이전 시에는 반대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수학 학습 비중을 줄이고, 잘 하는 영어 학습 비중을 늘리는 것 입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착각해 하지 말고, 암시 평가 요요인 고등 내신과 수능 영어 등급까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만들어 놓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 중3 11월 이후 시기에 영어 학습 시간을 최소로 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학 학습 시간을 극대화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p>
	중1~2	전진도	5~6등급	<p>성적이 상위권이 아닌 경우, 학원을 보내면 그나마 성적이 좀 나오고,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대다수 입니다. 그렇게 한 두 과목씩 학원에 의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요 과목 학원을 모두 다 넣고, 잘하는 영어 학습 비중을 늘리는 것 입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착각해 하지 말고, 암시 평가 요요인 고등 내신과 수능 영어 등급까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만들어 놓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 중3 11월 이후 시기에 영어 학습 시간을 최소로 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학 학습 시간을 극대화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p>
	초6이하	전진도	4등급이하	
	중3	전진도	3~5등급	
	중1~2	전진도	7등급이하	<p>성적이 상위권이 아닌 경우, 학원을 보내면 그나마 성적이 좀 나오고,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대다수 입니다. 그렇게 한 두 과목씩 학원에 의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요 과목 학원을 모두 다 넣고, 잘하는 영어 학습 비중을 늘리는 것 입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착각해 하지 말고, 암시 평가 요요인 고등 내신과 수능 영어 등급까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만들어 놓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 중3 11월 이후 시기에 영어 학습 시간을 최소로 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학 학습 시간을 극대화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p>

581 중3 11월 이전까지는 과감한 '몰입 학습'을 통해 등급 차별화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587

0

0

0 중하위권 일수록 학습 과목수를 줄여야 합니다.

0

0

5

일반 VS 특구	학년	진도	등급	멘트 내용
별 1	전학년	전진도	1~2등급	<p>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교육 특구에서 학습을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 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성적 상위권은 고등과정 성적 기준 입니다. 초, 중등 학생의 경우 본인이 진학 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내신 기술 등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당 고등학교의 최근 3년 동안 대입 실적 확인하여,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내신 별 등급까지 진학 시켰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고등 진도를 나가지 못해서 고등 '내신 기술 등급'을 확인 할 수 없거나, 대입 실적 등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p>
2	전학년	전진도	3~6등급	<p>성적이 상위권이 아닌 경우, 교육 특구의 사교육 환경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내신 등급을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추천 합니다. 예를들면 내신등급도 학원은 라이더가 가능 하지만 비교는 강남구가 아닌 지역으로 다니는 것 입니다. 물론 교육 특구에서 대입 실적도 확인하고 학력 수준이 떨어지면 내신 평가가 더 편할 것 입니다. 그렇다고 라이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컨설턴트에게 비례하는 시간이 너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적절성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고민 하신다면, 가족이 가장 잘가 편한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선택이 얼마나 입시의 효율성을 가져오는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p>
3				
4				
5				
6				
파 7				

325 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교육 특구에서 학습을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 합니다.

385 성적이 상위권이 아닌 경우, 교육 특구의 사교육 환경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내신 등급을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추천 합니다.

0

0

0

0

0